(1) 제10242號 (1957·3·7第3種郵便物認可) (1950·7·1 登錄番號가—12) The Hankook Ilbo 1982年2月9日 (火曜日) (15版) 【日刊】

東京 뉴저팬호텔에 큰불

한국人 8명 死亡

◇투숙객 32명 犧牲…深夜의 阿鼻叫喚

불길을 토해내고있는 뉴저팬호텔。 따자마차림의 한 투숙객(점선내)이 객실 한마이에 매달려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고있다。 그는 소방관들이 설려준 고가사다리를 타고 극적으로 구조됐다。 【東京 8日AP聯=聯】

秘錄 現代史發掘 5·16에서 維新前夜까지

5면 連載

金泰東씨(前 사관장) 등 慘變…10명 負傷

8일새벽發火 한국研修團34명、火災層 투숙

모두 9·10층만 불타

4백15명 投宿

金泰東씨 등 34명 무사

火因 아직 모른채

日首相、애도表明

이스라엘大使館 한국、再開를 推進

水害상습지 다른 그린벨트에 移住도

"用途변경과 區域조정은 일체 안한다"

國民校 신설만 1백곳 그린벨트 풀다

金書設 34個校 짓도록…管理규정 제한적 緩和

「強力한 美國」 豫算 뒷받침…(3) 景氣가 되살아나고 있다…(4)

社會漫畫

"그쪽「非常口」도 어지간 하구려…"

線地平

「권산리 영계수야 수이 갚을 자랍라라」 —16세기초를 넘던 기생 황진이는 그의사랑을 한평시조로 백했다。 이무엇 서양에서는 순수전이나 플 고백하고며 불이며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20세기도 저물고 있는 지금은 어떨까? 학가하게 시를 읽을 줄 알아도 그렇다고 순수전이나 참사를 행하는 것도 아니다。 ▶근래 서울거리는 전화로 차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전화를 주고받는다는 뜻이다。 이 통해 주고받는다는 뜻이다。 이 통해 주고받는다는 뜻이다。 이 통해